

# WIKIMANIA CAPE TOWN



# 위키마니아 2018

위키마니아 소개

위키미디어 2030

기술적 시도

국제 교류

# 위키마니아

-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여러 위키 사용자들의 **국제 회의**
- **3일** 간의 컨퍼런스에서 토론, 회의, 훈련, 워크숍 진행
- **주제** :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, 오픈 소프트웨어, 자유 지식, 자유콘텐츠,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적 면.
- 개최 도시
  - 2017, 캐나다 몬트리올
  - **2018,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**
  - 2019, 스웨덴 스톡홀름



# 위키마니아 2018 메인 테마

- 지식 격차 줄이기 / Bridging Knowledge Gaps
- ↓2014 ~ 2017 위키데이터 지리 정보 항목 분포



WIKIMANIA  
CAPE TOWN

# 위키마니아 2018 메인 테마

- 지식 격차 줄이기 / Bridging Knowledge Gaps
- 지식 격차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??
  - 지역 : 경제적 부유 - 빈곤
  - 언어 : 화자의 다수 - 소수
  - 성별 : 사용자 다수 - 소수
  - 연령 : 신기술 익숙 - 낯선
  - 인종 : 인지도 다수 - 소수
  - 장애 : 접속이 가능 - 불가





# 바위너구리(South African English:Dassie)



# 위키미디어 2030

- 위키미디어2030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가 나아가야할 **전략적 방향**을 제시하기 위한 운동.
- Phase1 (2016~17) 탐색 : “우리는 자유로운 지식을 위한 생태계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되고자 하고, **지식 형평과 서비스로서의 지식**에 대해 전략적 **우선 순위**를 두는 방향에 동의한다.”



- 위키미디어 재단 정관 2조 : “재단의 **사명**은 전 세계 사람들이 **자유 라이선스** 또는 **퍼블릭 도메인**으로 교육 콘텐츠를 수집 및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전세계에 **배포**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”

# 위키미디어 2030

- 위키미디어2030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가 나아가야할 **전략적 방향**을 제시하기 위한 운동.
- **자유 지식**을 위한 **생태계**의 필수적인 **기반 시설**
- **서비스로서의 지식** :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에 개방된 지식을 제공하는 **플랫폼**으로 변화 시도. 동지와 파트너들과 위키미디어를 넘어 무료 지식을 교환 할 수 있는 **도구**를 개발.
- **지식 형평** : 사회 운동으로서 힘과 특권에 의해 밀려난 지식과 공동체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.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환영. 자유 지식에 접근하고 공헌하는 것을 막는 **사회적, 정치적, 기술적 장벽**을 무너뜨릴 것.



# 위키미디어 2030

- 위키미디어2030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가 나아가야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운동.
- Phase2 (2018~20) 탐색

- 9개의 Working Group (10~15명 / 평균 주당 5시간)

역할 & 책임	수입 흐름	자원 재할당
다양성	파트너십	능력 육성
공동체 안정성	성과 & 기술	변호

-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키마니아2018에서 Working Group Member를 선정
- Working Group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 핵심팀을 둬.

# 위키미디어 2030

- **Phase2 (2018~20) 탐색 일정**

20180612-20180702	9개 Working Group에 참여할 사용자 모집
20180703-20180719	후보자 평가 및 선정
위키마니아2018	WG 멤버 발표 및 첫 모임
<b>201807-201810</b>	<b>준비 지속, WG 구성원 다양화 프로세스</b>
201811-201902	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WG 작업 범위 탐색
201903-201906	직접토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피드백을 포함한 자료 연구 분석
201907-201909 /위키마니아2019	WG와 커뮤니티의 토론 <b>종결</b> . 직접 토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로 깊고 사항 초안 작성.
201910-202006	깊고 사항에서 <b>구현</b> 으로 전환

# 기술적 시도

- AI를 활용해서 위키백과 개방성 유지하기
- 정보상자 통합하기
- 위키데이터와 위키낱말사전

# 기술적 시도 1 : AI로 문서 훼손 퇴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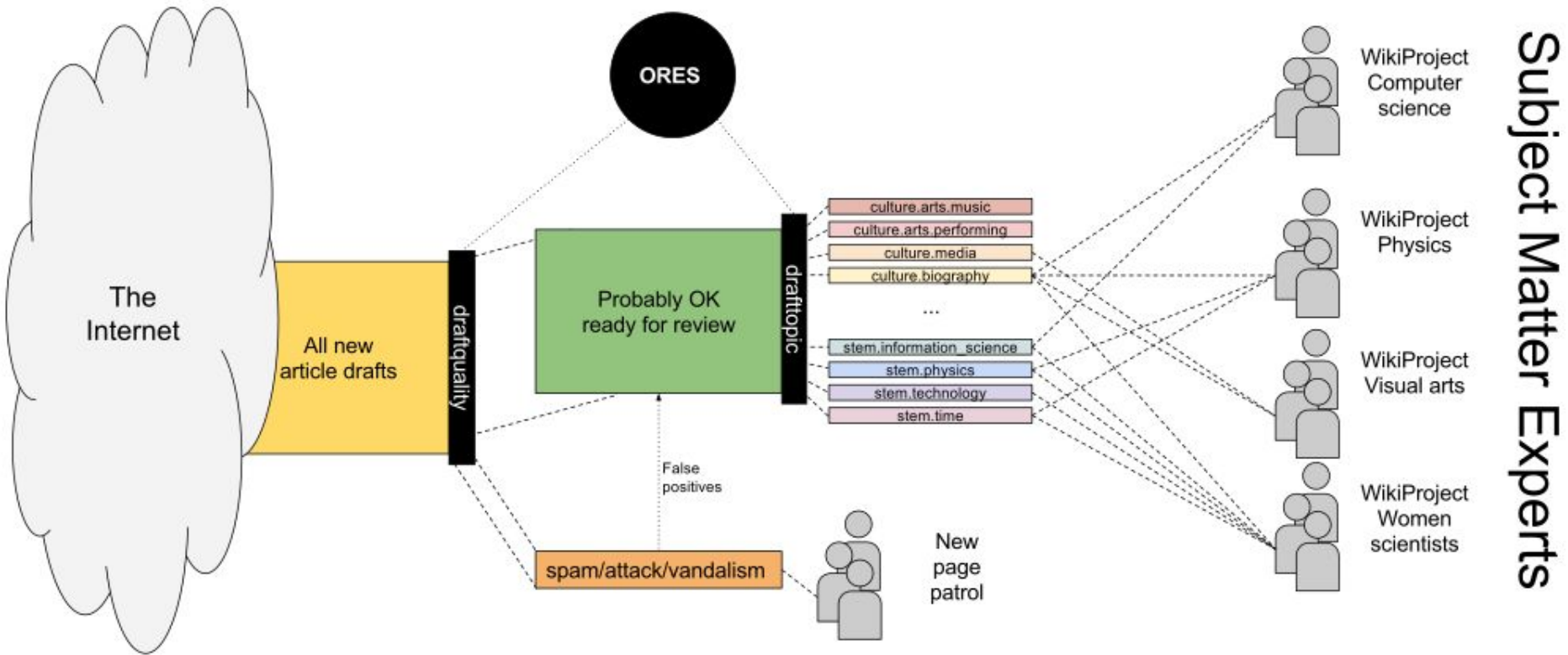
## 위키백과:ORES

- ORES : Objective Revision Evaluation Service
- 문서의 질과 편집의 질을 측정하는 백엔드 소프트웨어
  - 사용자가 이용하려면 확장기능 설치 필요



# 기술적 시도 1 : 시로 문서 훼손 퇴치

[[위키백과:ORES]]



# 기술적 시도 2 : 정보상자 통합

- 위키데이터를 통한 정보상자의 통합
- 참고자료 : 언어별 문서와 사용자 숫자
  - [https://meta.wikimedia.org/wiki/List\\_of\\_Wikipedias](https://meta.wikimedia.org/wiki/List_of_Wikipedias)
- 문제제기 : 사용자와 문서 숫자가 적은 위키백과와 큰 위키백과 사이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. 이 격차를 줄일만한 아이디어는 없는가?
- 제안 : 언어별 백과사전에서 정보 상자를 사용한다. 이것을 위키데이터 중심으로 재편해서, 항목 이름만 자동으로 번역되도록 하면 유용하지 않을까?
- 시도 : 어떤 정보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다. 모든 언어가 사용되는 위키미디어 공용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시도.

# 기술적 시도 3 : 위키데이터 Lexeme

- Lexeme : 어휘소 (ex:너희+는)
- 현재의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경우는 언어간 문서는 1:1 대응이 원칙
- 단어는 본질적으로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일대다 대응이기 때문에 동음이의, 이음동의 등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음.
- 한 개 언어에서 두 개 이상의 표기법이 공존하는 경우 있음.
- 방언 등에 대한 수록이 어려움.
- 위키낱말사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위의 문제에 대해서 위키데이터 상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.
- 위키낱말사전 커뮤니티와 교류하며, 시행중인 것으로 판단.

# 국제 교류

- 한국 위키미디어 커뮤니티
  - ESEAP 지역 커뮤니티
    - 아시아-오세아니아 지역 커뮤니티
      - 전체 커뮤니티
      - 위키미디어 재단
- 한국어 커뮤니티
  - 한자어 커뮤니티 (한중일월)
  - 영어 커뮤니티



# ESEAP 커뮤니티

- **ESEAP** : East & South East Asia + Pacific
-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커뮤니티
- ESEA에서 오세아니아 지역을 포함하여 ESEAP로 확대
- 오스트레일리아 프리맨틀에서 **ESEAP2019** 개최
- [https://meta.wikimedia.org/wiki/ESEAP\\_Hub/Community\\_Yellow\\_Pages](https://meta.wikimedia.org/wiki/ESEAP_Hub/Community_Yellow_Pages)



WIKIMEDIA

ESEAP

# 아시아-오세아니아 커뮤니티

- 아시아 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하는 커뮤니티
- ESEAP와 남아시아, 서아시아로 구분
- 2010년 위키미디어 홍콩이 제안
- 2010년 위키마니아 그단스크에서 성립
- 위키마니아 행사마다 정기적으로 모임
- 남아시아 2020년 지역 컨퍼런스 준비중
- 서아시아 쪽은 특별히 정례화된 모임 불명
- [https://meta.wikimedia.org/wiki/Wikimedia\\_Asia-Oceania\\_Project](https://meta.wikimedia.org/wiki/Wikimedia_Asia-Oceania_Project)

WIKI MEETUP



ASIA & OCEANIA

# 전체 커뮤니티

- 아시아-오세아니아
- 아프리카
- 서유럽
- 중부-동유럽(CEE)
- 아메리카
- (아랍?)

※모든 대륙 커뮤니티가 역내에서의 소통에 언어적 장벽이 있음을 밝힘.

# 위키미디어재단

- 수십 ~ 수백명의 사람들이 수천~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
- 재단의 방침은 지역 모임을 활성화해서 커뮤니티 간의 교류를 늘리는 쪽
- 각 재단직원마다 전문 분야가 다름. 대체로 친절함.
- 한국 국내법에 따르는 영항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한국법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
- 한국어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친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음